

# 아시아 태평양지역 석유시장동향과 싱가포르 정제산업의 역할

崔 鍾 鎬

〈대한석유협회 홍보실〉

이 자료는 지난 6월 14~16일 International Herald Tribune과 The Oil Daily 주최로 싱가포르에서 열린 「Oil and Money」 세미나에서 Dick Van Hilton 싱가포르 웰 시장이 발표한 글을 옮긴 것이다. <역자 註>

**본고**에서는 아시아 태평양지역에 초점을 맞추기에 앞서 세계의 석유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고, 이와 같은 맥락에서 수출정제 중심지로서의 싱가포르의 석유수요증가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 석유수요

1950년대와 60년대는 低油價의 시대였고 연간 7.5%의 소비증가율을 보인 시기이기도 했다. 그러나 1973년과 1979년에 있었던 두 차례의 석유위기는 油價를 20배 가까이 상승시켜 배럴당 36달러라는 현기증나는 수치를 이르게 했다. 이에 따라 세계는 자원보존과 타 에너지원에 의한 석유의 대체라는 효과적인 방안들에 대해서 눈뜨게 되었다. 석유위기가 있는 직후 수요는 6~12% 정도 감소하였지만, 곧 회복세를 보여 연간 3%의 증가를 계속했다.

당시 총에너지중 석유의 비중은 1973년의 48%에서 '87년에는 38%로 감소하였다. 대체에너지는 주로 연료유부문에서 10%를 차지하였는데, 이중 원자력이 4.5%, 석탄과 천연가스가 각각 2%, 수력이 1%였다.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경제는 다른 지역보다 견실하여, 석유위기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석유수요가 1973년의 9백만B/D에서 1987년에는 11백만B/D로 증가하였다. 中國, 印度, ASEAN(동남아국가연합), 신흥공

업국들은 연간 5%의 증가율을 보였다. 日本의 소비는 1백만B/D 정도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최대의 석유소비국으로서 1987년에는 이 지역 석유소비의 42%를 차지하였다.

이 기간중 高油價와 결부된 수송연료에 대한 높은 수요는 석유제품의 경질화를 촉진시켰다. 日本에서의 경질제품수요는 배럴당 50%에서 80%로 격증하였고, 신흥공업국에서는 37%에서 67%로, ASEAN에서는 60%에서 70%로 증가했다.

## 수요, 油價, GDP

위에서 본 바와 같이, 油價 특히, 갑작스럽고도 큰 폭의 유가변동은 석유의 수요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변화되고 있는 산업구성, 즉 선진공업국으로부터 신흥공업국으로 수출되고 있는 에너지집중산업을 가지고 있는 산업구성이다. 이것은 관련 국가들의 석유소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의 석유전망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에너지소비비중에 따라 4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1.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 日本, 濠洲, 뉴질랜드
2. 신흥공업국 : 韓國, 台灣, 홍콩
3. ASEAN 회원국

4. 개발도상국 : 中國, 印度

OECD 회원국들에서는 대체에너지에 의한 重油의 지속적인 대체현상과 수요석유의 경질화가 보여지고 있다. 그리고 경제활동의 중심이 에너지집중도가 높은 제조업에서 서비스업과 고도기술산업으로 옮겨가므로써 에너지소비는 어느 정도 정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지역 최고의 GNP와 석유소비의 반을 차지하고 있는 日本은 심각한 사회와 산업의 개조현상을 겪고 있는데, 소비자운동과 탈규제화현상이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국내경제의 활성화로 기대치보다 높은 에너지 소비를 보이고 있다.

반면에 신흥공업국들은 에너지에 대해서 강한 욕구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그들의 GNP증가와 선진공업국들로부터 이전된 제조업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도 韓國, 台灣, 홍콩 등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과 같은 환경보존압력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ASEAN의 경제는 농업상품에 기반을 둔 국가들에서부터 신흥공업국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다양하다. 이 같은 다양성과 보완성은 변화되는 환경 속에서도 그들의 경제성장과 석유수요를 견실하게 해줄 것이다.

마지막으로 풍부한 인적자원과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中國과 印度의 석유수요증가는 자체의 석유생산과 정제능력을 앞설 것으로 기대된다. 장래의 中國과 印度는 과거의 台灣과 현재의 泰國과 같은 성장의 잠재력을 가질 것이다.

**맺는말**

이들 경제의 다양성으로 보아, 아시아 태평양은 가능성이 큰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인구의 55%가 여기서 살고 있고, 인구증가율은 세계평균보다 높으며 인구구성면에 있어서도 더 젊다. 이 지역 경제의 실적을 보더라도 젊음의 낙관론을 입증하여 주고 있고 태평양연안지역의 경제성장 장기전망을 밝게해주고 있다. 에너지와 수송연료의 수요는 강할 것 같고 도시화의 빠른 진전은 전통적인 에너지를 상업적 에너지로 대체시킬 것이다.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경제성장은 OECD국가들보다 50% 정도 빠를 것 같으며, 非OECD국가들은 매년 3~4%가 더 많은 석유제품을 소비하게 될 것이다. 油

價는 확실히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OPEC은 세계에너지시장에서 자신들이 차지하고 있는 점유율을 낮추려고는 하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油價는 배럴당 12~18달러선을 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수준에서의 수요에 대한 油價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적정할 것으로 보인다.

공급측면을 보면, 제조능력은 제품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증대될 것이며, 대체적으로 이 지역에서는 경제적인 논리가 정치적인 고려를 압도할 것으로 보인다. 정제능력의 증대는 필연적으로 경제적 규모인 'Chunks'의 단계에 들어가게 함으로써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수입의 여지가 생겨나게 되고, 정제시설건설계획과 수요증가율을 고려하여 수입시장은 당분간 1.5백만B/D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싱가포르의 정제업자들은 이러한 수출에 익숙하다. 그러나 많은 유리한 점을 가지고 있는 새로운 참가자들의 진입으로 강한 경쟁에 직면하고 있다. 中東지역의 정유공장확장계획의 첫단계는 사우디아라비아의 Rabigh 정유공장과 쿠웨이트의 시설고도화계획이 본격 가동되는 올해 안에 완결될 것이다. 中東의 수출정제공장들은 현대적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또한 저렴한 정제연료와 재료에 접할 수 있어 강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싱가포르의 정제업자들은 지리적 이점과 우수하고도 책임감 넘치는 사업품토와 조직을 가지고 있다. 보다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저비용의 경영이 요구되고,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또는 제품의 등급이 변할 때 야기되는 수요패턴 변화에 공급을 맞출 수 있는 유연성도 갖춰야 될 것이다. 따라서 규모의 확장이 아닌 부가치의 증대와 유연성 제고를 위한 투자가 이루어져야만 하며, 이렇게 함으로써만이 경영상의 수지를 맞출 수 있고 시장의 점유율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아시아 태평양지역에 있어서의 싱가포르 정제업의 역할은 낙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장래의 예기치 않았던 어려움들에 대해 대처할 능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위기라는 말의 중국식 표현에는 위협과 기회라는 두 가지의 복합적인 의미가 들어 있다. 싱가포르는 이것을 잘 알고 있으며, 제때에 위협을 인지하고 위험 부담을 계산하여 기회를 붙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